

보건소장의 갑질인가, 노조의 길들이기인가

“직원 42명중 1명만 ‘갑질’ 답변...노조 설문조사 근거 빈약” 동구보건소장 징계 불복 소청제기...내일 市소청위 결과 주목

광주 동구보건소장이 노조가 설문조사를 통해 자신에게 제기한 ‘갑질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면서 진실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 동구지부(이하 노조)측의 주장대로 ‘보건소장의 갑질’인지, 아니면 ‘노조의 간부공무원 길들이기’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애초 보건소장에게 불문경고를 내렸던 광주시인사위원회는 오는 6일 소청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처분 취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4일 광주 동구와 노조, 동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해 9~10월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노조는 당시 설문조사와 익명의 투서, 피해직인 면담을 통해 남모 동구보건소장(4급)이 하급 직원을 괴롭혀왔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노조는 “피해자 신원이 드러날 경우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보건소장을 중징계 조치하라”고 동구청을 압박했다. 남 소장은 2003년 계약직 4급으로 임용된 후 2007년부터 동구 보건소장을 맡아왔다.

당시 공직사회 내부에선 이 같은 노조를 중심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와 일방적인 징계요구를 놓고 상급자에 대한 무차별적 마녀사냥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동구감사관실은 곧바로 노조가 밝힌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광주시인사위원회에 남 소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으며, 지난해 12월 불문경고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남 소장은 ‘노조의 갑질간부 조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고, 동구감사관실의 조사도 왜곡됐다고 광주시에 소청 제기와 함께 반박문을 제출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남 소장은 반박문에서 “동구감사관이 광주시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변명서를 살펴보면 갑질을 경험한 직원은 3명, 목격

하거나 들은 직원은 7명으로 나와있다. 그러나 감사사유가 된 노조설문을 보면 갑질 행위자로 보건소장을 지목한 사람은 42명 중 1명 뿐”이라며 “동구감사관실이 설문조사 결과 자체를 왜곡했다는 증거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이어 “동구감사관은 제보자 2명을 조사했다고 해놓고는, 정작 징계사유로는 노조의 설문조사 내용을 수차례 명시하고 있다”며 “결국 동구의 입맛대로 징계 사유를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소장은 이와 함께 “동구감사관실에 따르면 갑질 제보자 A씨가 10여 년 동안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직원이 보건소에 근무한 기간은 4년6개월에 불과하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마녀사냥식으로 징계 요청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소장은 또 다른 제보자 B씨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남 소장은 “B씨의 제보는 갑질이 아닌 보건소 내 다른 직원과의 관계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남 소장은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제보자

B씨가 보건소장과 도저히 근무할 수 없어 동주민센터 전출을 희망했다고 나와 있지만, 감사실 문답서에는 “다른 직원과의 승진 문제가 얽히자 구청장에게 본인이 동주민센터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이어 “제보자 B씨가 동구감사실에 제출한 갑질에 따른 스트레스로 우울증약과 수면제 처방을 받았다는 자료마저도 진단서가 아닌 의사소견서와 진료확인서였으며, 진료도 단 한차례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동구 노조는 이 같은 남 소장의 주장에 강력 반박하고 있다. 동구 노조 관계자는 “설문은 지난해 서구청과 시청 간부의 갑질이 불거진 이후 진행된 것으로, 동구 보건소장을 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다만 설문에서 다수가 갑질 경험을 했고 피해자까지 있는데도 보건소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건소장이 끝까지 불복할 경우 퇴직자를 상대로 증언을 수집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8 해질 18:31 달뜨기 06:20 달지기 17:12

출근길 짙은 안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높겠다.

광주	구름 많음	3/17	보성	구름 많음	0/16
목포	구름 많음	3/15	순천	구름 많음	5/17
여수	구름 많음	6/15	영광	구름 많음	-1/15
나주	구름 많음	-1/17	진도	구름 많음	3/15
완도	구름 많음	4/17	전주	구름 많음	2/14
구례	구름 많음	0/17	군산	구름 많음	2/11
강진	구름 많음	1/17	남원	구름 많음	-1/16
해남	구름 많음	-1/16	축산도	구름 많음	5/13
장성	구름 많음	-1/16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	동~남동	0.5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	동~남동	0.5~1.0
남해 앞바다(동)	북동~동	0.5~1.0	동~남동	0.5
남해 앞바다(서)	북동~동	1.0~1.5	동~남동	1.0~1.5

◇ 생활지수

- ☀️ 높음
- ☁️ 뇌출중
- ☔️ 매우 높음
- ☔️ 감기
- ☔️ 매우 나쁨
- ☔️ 미세먼지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6:53 19:28	01:26 14:08
여수	간조	만조
	02:29 15:02	09:03 20:58

◇ 주간 날씨

6(수)	7(목)	8(금)	9(토)	10(일)	11(월)	12(화)
☀️	☀️	☀️	☀️	☀️	☀️	☀️
7/14	3/12	1/15	1/15	6/12	4/12	3/14



설레어서 잠 못 잤나...하품 입학식 4일 오전 광주 동구 장원초등학교에서 열린 신입생 입학식에서 한 학생이 지루한 듯 하품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교육청 올 298명 채용 4월 15~19일 인터넷 접수

전남도교육청은 4일 ‘2019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선발예정인원은 교육행정 191명, 시설(건축) 23명, 해양수산 8명, 조리 28명, 운전 48명 등 5개 직렬 298명이다.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선발하는 ‘해양수산(선박항해) 2명, 해양수산(선박기관) 1명, 시설(건축) 6명’은 특성하고·마이스터고등학교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진출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일반 응시생과 별도로 장애인 11명, 저소득층 4명을 구분 선발한다. 올해부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문제 출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한다. 위탁출제가 불가능한 과목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협의체에서 공동출제 한다.

응시원서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접수한다. 필기시험은 6월 15일, 면접시험은 7월 26일로 예정됐다. 최종합격자는 8월 1일 발표한다. 문의 전남도교육청 총무과 061-260-0710. /김형호 기자 khh@



광주, 80년만에 가장 늦은 첫눈 쌓인 날 1월 31일에 3.8cm...두번째로 건조한 겨울

올 겨울(2018년 12월~2019년 2월) 광주지역은 1939년 이후 80년 만에 ‘첫 적설 기록일이 가장 늦은 해’라는 기상기록을 썼다. 광주는 또 기상청이 전국적으로 기상을 관측한 이래 두 번째로 건조한 겨울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18년 겨울철 광주·전남 기상특성’ 등에 따르면 광주는 올 1월 31일 첫 적설(3.8cm)을 기록했다. 이는 광주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1939년 5월 이후 80년만에 가장 늦은 적설기록이다.

광주의 첫 적설일은 일반적으로 늦가을인 11월부터 초겨울인 12월 사이였으며, 12월에 적설이 한 차례도 기록되지 않은 해는 총 7회 뿐이었다. 이중 대부분은 1월 상순에서 중순 사이 첫 적설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올 겨울 광주의 강수량 수를 살펴보면 16일로, 전국적으로 기상 관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73년 이 후 46년만에 눈 등이 가장 적게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강수량 수는 두 번째로 적은 2013년 20일에 비해 4일이나 부족했다.

눈이 내리지 않자 겨우내 건조한 날씨도 이어졌다. 올 겨울 광주의 상대습도(최저)는 60%로, 2000년 58%에 이어 두번째로 건조한 겨울을 보냈다.

올 겨울 유독 눈이 내리지 않고 건조했던 원인은 10km 상공의 제트기류가 시베리아와 북한 부근에 형성돼 북쪽 찬 공기의 남하를 저지하고 대륙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서해상의 눈 구름대 생성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찬 대륙고기압의 세력이 평년보다 약화된 데다 상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주로 우리나라의 북쪽을 지나 1~2월에 기온이 높으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제품: LG ESS, 삼성SDI, SAMSUNG

ESS·설계·시공

전국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소 | 순천시 중영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